



코스피 3293.21 (+11.43)	코스닥 1047.33 (+9.15)
금리 (연평균) 1.462 (-0.022)	환율 (원/달러) 1131.80 (-3.20) (5일)



[뉴스]
셀트리온 렉키로나
'감마변이'에 효과
동물실험서 '유효성'
02



대우건설 사옥 전경.

중흥건설 2.1조에 대우건설 품었다

매각 우선협상자에 중흥건설 선정
최초 제시가 대비 2000억원 줄어

재입찰 매각 작업 지속진행 비판
밀어주기식 밀실·특혜매각 반발

중흥건설이 2조1000억원에 대우건설을 품는다. 인수가는 지난달 본입찰 당시 제시한 2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낮아졌다.

KDB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KDBI)는 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스카이라이프컨소시엄을 예비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매각대금, 거래 신속성,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향후 매각 절차를 진행해 대우건설의 경영안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재입찰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일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써냈지만 두 회사 간 제시한 가격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실사 이후 본계약 체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라며 "본계약 체결까지는 약 1~2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향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본입찰을 앞두고 약 50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걸면서 '3% 이상 가격 조정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지만 재입찰 매각 작업을 지속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중흥건설은 최초 제시한 2조3000억원에서 3%에 해당하는 690억원가량의 가격 조정만 이뤄질 수 있었지만 재입찰을 통해 인수가격 수천억원가량을 떨어뜨렸다.

재입찰이 사실상 입찰가를 낮추기 위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 노조는 이 같은 절차가 밀실·졸속·특혜매각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매각대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의 반발과 함께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난 2일 '대우건설 매각 과정 관련 졸속, 특혜매각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입찰가를 높게 썼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니,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특혜매각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국가자산 매각을 이리도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계약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2006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인수됐다가 2010년 현재의 KDB산업은행 산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美·英 등 바이낸스 규제… 韓도 압박 수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정치권, 규제 방안 논의
특금법 미신고시 영업정지 등 고려

세계 최대 가상화폐(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향한 각국의 규제가 빚발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는 자국 내 바이낸스의 계열사에 대한 영업 정지를 지시했을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태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바이낸스의 영업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

르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거래대금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4시간 거래대금 규모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조7000만원대 규모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의 총합(6조460억원)보다도 두배가 넘는 규모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옥죄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한국 법인이 없는 바이낸스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특금법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 신고 대상에 바이낸스 포함

과 함께 미신고시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은 물론 국내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거래소가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확한 과세가 어렵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듯 거래소 사이트 차단은 물론 우회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는 탈세 위험을 안내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가 특금법 신고 만료 기한인 오는 9월까지 신고절차를 밟을 지는 미지수다.

(3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



무서운 계란값… 4년래 최대폭 상승

5일 오전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6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지난 1991년(14.8%)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파가 올 상반기 156.6%, 사과(54.3%) 역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계란의 경우 38.9% 올라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뉴스

반도체 부족, 노사 갈등… 車업계, 하반기 난제

상반기 판매 20% 이상 선방했지만
임단협 갈등에 파업 우려 노심초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판매 선방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에 도수출 물량 확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반도체 부족 장기화와 원자재값 인상, 노사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는 올해 상반기 국내외 시장에 372만3634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개

선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발생한 해외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이 영향을 줬다. 내수는 75만3104대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가 297만530대로 31.7%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문제는 이같은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최대 변수다. 현재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 반도체 부품 부족 현상 장기화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 확산 등으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업체의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돼 향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상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이미 수십만대의 생산차질을 경험한 상태에서 노조의 대규모 파업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상반기 완성차 업체를 뒤흔든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완성차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용 강판 공급가 인상에 대한 부담도 발생한다. 현대차·기아와 철강사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경찰, '민주노총 집회강행' 수사 6명 입건… "사안임중"
▲ 車노조 '파업' 총공세에… 한국GM·현대차 잇따라 찬반투표 /사진 뉴스

▲ 30대 男 안센 접종 11일 후 심정지·뇌출혈 사망… "인과성 조사중"
▲ 수도권 20대 확진자, 최근 일주일 75% 늘었다



▲ '코로나 방역' 로봇이 나선다… 인천공항, 국내 첫 도입 /사진 뉴스
▲ 오늘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인상… 월 7000원~1만원 더 내